

# 5·18 진실·권력의 폭력성 노래합니다

4인조 '제4집단' 첫 앨범 발매  
광주서 활동하며 '민주화' 등 발표  
'5월' 모티브로 다양한 음악세계  
360도 관람 가능한 공연 지향



제4집단 멤버들. 왼쪽부터 선만, 사군, 정치현, 최정식. <제4집단 제공>

“예술은 죽었다!”  
한국 1세대 전위예술가 김구림 화백이 1970년 8월 남긴 말이다. 그의 선연과 맞물려 정찬승, 손일광 등 각계 예술인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 시가행진을 펼쳤는데, 이는 현대예술의 상업성에 대한 경멸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퍼포먼스였다.

이로부터 50여 년 세월이 흘렀다. 다양한 예술가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술이 '상업성'만 좇고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다.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두고 오로지 음악만을 매개로 '제4집단'이라는 팀을 결성해 활동하는 팀이 있다.

“늘 시선이 모이는 곳에는 권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360도 어디서나 관객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무대를 구성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마당극이나 로마에 있는 원형극장, 세계적 록밴드 U2의 360도 공연 등을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관객과 아티스트의 '가장 수평적인 만남' 이랄까요?”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는 독특한 무대구성이 특징이다”라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다. 팀은 드럼을 맡은 사군, 베이스를 맡은 최정식을 비롯해 턴테이블 연주자 선만, 행위예술가 정치현 총 4인의 아티스트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백중록 음악감독이 영상·음악작업을 도와 연주곡 위주의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것.

예전부터 합을 맞춰오면서 앨범 발매를 준비해 오던 이들은 지난 25일 애플뮤직 등 모든 음원사이트에서 고대하던 첫 앨범을 선보였다. 앨범명 또한 팀명과 동일한 '제4집단'. 기성 음단의 논리와 상업성에 물들지 않겠다는 '뉴에이브'로서의 결의를 담았다.

사군은 이번 앨범의 특징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원데이 녹음을 진행했기에 낯것의 냄새가 나는 사운드를 담을 수 있었다”며 “평소 존경하는 레드 제플린, 킹크립스, 핑크 플로이드 등 록밴드의 영

향을 많이 받은 작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활동하며 그동안 '민주화' 등의 비정규앨범 곡을 발매하기도 했다. 비극적인 분위기와 날카로운 총성 같은 심벌즈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열망을 악곡에 투사했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5·18을 표상해 온 '님을 위한 행진곡'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광주의 비극을 위무하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작년 7월 금남로 전일빌딩245 옥상(전일마루)에서 펼쳤던 행위예술 'HELLreCOPTER'도 5월과 광주의 메시지를 함의하는 작품이었다. 정치현 행위예술가가 헬리콥터의 불빛과 도망가는 시민들, 싸우는 시민들의 몸짓을 음악에 맞춰 연출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번 앨범에 수록

돼 의미가 더 깊다.

제4집단은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 5·18에 대해 왜곡하거나 폄하를 시도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경중'을 울리고 싶었다”며 “그래서인지 '5월'을 모티브로 다양한 곡들을 창작해 왔고, 이번 앨범에도 권력의 폐단을 고발하는 성격을 갖는 작품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제4집단은 권력의 비극성을 비판적으로 노래하는 '동물농장', '공장대량생산' 등을 발표하며 음악과 몸짓이 결합된 종합예술로 광주의 상흔 등을 이야기해 왔다.

한편 이번 앨범에는 'PHONE',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세상은 요지경', 'NO.3', 'OUTRO' 등 총 8곡이 수록돼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극장 '영화퀴즈대회' 4년만에 컴백

30일 영화의집...상품권 제공·송년 파티도

영화 애호가라면 올해 송년의 밤에는 '광주극장'에 모여, 영화퀴즈를 맞추면서 시네필의 열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2019년 13회를 마지막으로 명맥이 끊겼던 영화퀴즈 대항전(영퀴대회)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극장 옆 영화의 집에서.

퀴즈는 영화 포스터와 스틸 컷 퀴즈, 이미지를 보고 작품명을 추론하는 '포스터/스틸 컷 퀴즈' 코너부터 영상을 보고 제목을 맞추는 '영화 속 한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 토크쇼와 돌발 퀴즈, 번외 문제까지 준비돼 있다.

그동안 광주극장에서 상영했던 예술영화를 비롯해 멀티플렉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면 모두 출

제 대상이다. 1등 상 수상자에게는 광주극장 상품권 10만 원을 제공하며 비금상, 격려상 등도 있다.

행사가 끝나면 송년 파티도 펼쳐진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음료와 음식, 주류 등을 준비해 와도 좋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화제작부터 독립영화, 예술영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퀴즈' 형식으로 만나는 송년 영화축제”라며 “영화에 대한 지식도 나누고 영화 애호가들을 함께 만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극장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배우 이선균 사망

## 무명 배우서 월드스타 우뚝 '마약 수사'로 정점에서 추락

'하얀거탑'·'커피 프린스'로 두각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레드카펫  
올해 칸 영화제에서 2편 초청  
3차례 경찰 조사...이미지 치명상



배우 이선균씨.

27일 세상을 등진 배우 이선균(48)은 20대 때 무명 시절을 거쳐 30대 들어 빛을 보다가 40대에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특히 올해는 그가 주연한 영화 2편이 동시에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받으며 배우 인생 정점에 올라선 해여서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975년생인 이선균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해 1999년 비유의 '팬텀' 뮤지컬 디오에 출연하면서 데뷔했다.

2001년 MBC 시트콤 '연인들'을 통해 방송에도 데뷔했지만, 이후 오랜 시간 단역·조연을 전전했다. MBC '베스트극장', KBS '드라마시티' 등 지상파 단막극에서 주연을 맡아 천천히 인기를 다졌다.

그러다 32세이던 2007년 MBC 의학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가진 바른 의사 '최도영' 역으로 비로소 대중의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다.

같은 해 방영한 '커피프린스 1호점'에서는 음악가 최한성 역을 맡아 존재감을 강하게 각인했고, 주·조연 배우로 올라섰다.

이선균은 두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에서 미니시리즈부문 황금연기상을 받았다. 데뷔 후 처음으로 받은 연기상이었다.

이후 '파스타' (2010), '골든타임' (2012) 등 그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으면서 '배우 이선균'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특유의 화를 내는 연기 덕에 '버럭 선군'이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영화로도 보폭을 넓힌 그는 '제제한 로맨스' (2010), '체포왕' (2011), '화차' (2012), '내 아내의 모든 것' (2012), '끝까지 간다' (2014)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흥행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다.

홍상수 감독의 독립·예술영화 '옥희의 영화' (2012), '우리 선학' (2013) 등에도 출연하며 연기력을 뽐냈다.

그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박 사장 역을 맡아 일약 월드스타 반열에 올라섰다. 이 영화는 그해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았다.

그즈음 국내 팬들의 마음도 단단히 사로잡았다. 아이유와 함께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 (2018)에서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팬층을 형성했다. 지금까지도 각종 명대사와 명장면이 회자할 정도로 사랑받은 드라마다.

이선균이 대기만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뛰어난 연기력이 꼽힌다. 코미디, 스릴러, 드라마, 멜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화하는 폭넓은 연기력과 좋은 목소리는 배우 이선균의 장점이었다.

그는 올해 톨라코스터를 탔다. 그가 주연한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잠'이 동시에 칸영화제에 초청받아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커리어 정점에 올랐다.

해외 매체 기자들의 관심도 '기생충' 주연 배우인 이선균에게 쏠렸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이선균의 아내인 배우 전해진과 두 아들도 칸영화제에 동행해 남편과 아버지에게 축하를 건넸다.

그러나 지난 10월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여파로 이선균이 주연한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행복의 나라'는 개봉이 보류됐고 드라마 '노 웨이 아웃'은 조진용으로 배우가 교체됐다.

이선균은 총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그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희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